

CNN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총돌 하나를 끝냈다”

외신들 뜨거운 반응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 미·중·일·러 등 세계 각국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이날의 최대 현안으로 다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과 회담,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르기까지 외신들은 “상상할 수 없던 장면” “새 역사 시작” 등의 내용으로 신속히 보도했다.

중국 관영통신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추진하기로 밝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앙(CC) TV는 판문점 선언 발표를 생중계로 전하면서 “두 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미·중·일·러 등 세계 언론 매체 일제히 긴급 속보 타전

“역사적 만남, 엄청난 순간”...일거수 일투족 상세히 전해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반관영 매체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도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번 선언은 완전한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언론도 이날 핵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등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긴급 기사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청와대와 공동취재단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오전 회담에서 “대결의 역사에 중지부를 찍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등 회담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다뤘다. NHK도 이날 동시통역을 통해 문 대

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이후 판문점 앞에 준비된 연단에서 연선언 발표식을 생중계했다.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등도 인터넷판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주요 기사로 내보냈다.

AP와 로이터, AFP, dpa, 타스, 교도 등 국제 통신사들도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 못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등 ‘판문점 선언’ 내용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미국 CNN도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제목의 홈페이지 헤드라인과 함께 남북 정상의 만남부터 회담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역사적인 협정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선언은 문 대통령-김 위원장간 30여 분에 걸친 개별 대화 이후에 나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총돌의 하나를 끝낼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NBC방송도 “남북 정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데 합의했으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변화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발화점의 한 곳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회담에서 서로의 국경을 넘으며 커다란 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불룸버그통신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침내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CIA 국장이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 북한을 방문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촬영 날짜와 세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라산과 백두산 흙, 한강·대동강 물로 공동식수...화합 의지 다져

정상회담 이모저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군사분계선 인근 ‘소매 길’에 소나무를 심는 공동 기념식수 행사도 했다.

준비위는 “남북 정상이 정전 65년 동안 대결과 긴장을 상징하는 땅이었던 군사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었다”며 “군사분계선이 갈라놓은 백두대간의 식생을 복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함께 심은 소나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반송’이다. 반송은 땅에서부터 여러 갈래의 줄기로 갈라져 부채를 펼친 모양으로 자라는 소나무의 한 품종이다.

또 나무를 심은 소매 길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고향으로 소 1001마리를 끌고 방북했던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 옆 잔디밭 길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직접 삽을 들고 흙을 뒀다. 공동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서 사용했다. 식수 후에는 문 대통령이 대동강 물을, 김 위원장이 한강 물을 각각 뿌렸다.

‘합도합수(合土合水)’를 통해 남북 평화와 화합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파주 화강암으로 만든 식수 표지석에는 한글 서예 대가인 효봉 여태명 선생의 글씨로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귀를 새겼다. 이 글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지석 아래 좌우에는 각각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는 두 정상의 서명도 들어갔다.

이번 공동식수는 우리 측이 먼저 제안했고, 수종이나 문구 등도 우리 측의 제안을 북측이 흔쾌히 수락해 성사됐다고 준비위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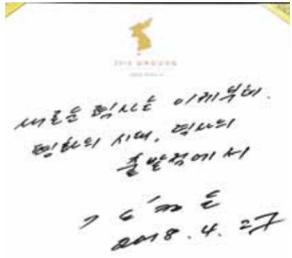
김여정 회담 배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7일 회담은 남북 모두 2명만 배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우리 측은 문 대통령 왼쪽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앉았다.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 왼쪽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오른쪽에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통전부장)이 배석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의 회담 배석은 그가 단순히 김 위원장의 동생으로서 상징적 로열패밀리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이자 김 위원장의 파트너로서 정책결정과 실행 전 과정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종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는 점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배석은 그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명록.

김일성 ‘태양서체’ 연상 필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평화의 집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썼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 위원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또 방명록에 각도가 20~30도 기울여 썼다. 이 필체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려 쓰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이른바 ‘태양서체’를 연상시켰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청와대 방명록에 태양서체를 연상시키는 필체를 남겼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이날 방명록에 남긴 글에 연도 표기를 ‘주체연호’ 대신 ‘2018. 4. 27’이라고 쓴 점도 주목을 받았

다. 주체연호는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정해 산정하는 북한식 연도 표기법이다.

김 위원장 다양한 표정

방송으로 생중계된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민에 사실상 첫선을 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표정은 다양했다.

핵 문제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까지 몰고갔던 김 위원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한때는 긴장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솔직·대담했고 어떤 때는 여유를 보였다.

27일 오전 북측 판문각에서 나와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올 때 화면에 비친 김 위원장은 위풍당당했지만 긴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MDL 앞에서 기다리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활짝 웃으며 다가온 김 위원장은 MDL을 사이에 두고 1차로 악수를 한 뒤 남측으로 넘어와 다시 악수하며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어 분단의 선 북쪽으로 넘어갈 때는 대담성과 여유를 잃을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걸을 때는 긴장감을 느끼게 했으나 얘기를 나눌 때는 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군 의장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위원장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는 ‘평양 냉면’ 얘기를 꺼내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박지경 기자

백악관 김정은·폼페이오 면담 사진 공개

트럼프 “훌륭한 만남 가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매우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이상 이어졌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러한 ‘깜짝 면담’ 뒷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김 위원장 특유의 과격적인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동시에 북미 정상 간 본 담판에 앞서 비핵화 문제 등에 깊숙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뒷얘기를 소개한 뒤 몇 시간이 지나 백악관이 회담 장면을 담은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폭스뉴스 ‘폭스 앤 프렌즈’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방북했을 때만 해도 김 위원장과 면담은 따로 잡혀 있지 않았다. 그러다 그의 방북 기간에 ‘인사 차원’에서 일정이 잡혔으며, 1시간 이상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매우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매우 조용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만남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잘 지냈고 한 시간 이상 서로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내용과 관련해 “인사 차원을 넘어섰다”고 언급, 비핵화를 포함한 여러 목적인 소재가 테이블에 올랐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Aromalife 이노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옥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